

현안과 과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 중성장 시대의 중국에 대비해야 한다

<보론>

4자성어로 풀어본 시진핑시대의 중국

Executive Summary

□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 중성장 시대의 중국에 대비해야 한다!

■ 시진핑(習進平)시대의 도래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習進平)시대가 본격 개막될 전망이다. 올 11월 8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내정될 시진핑 부주석은 2013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에 오를 전망이다.

■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시진핑 시대(2013~2012년)는 덩샤오핑(1978~1992년), 장쩌민(1992~2002년), 후진타오(2002~2012년)와 같은 타 정권과는 달리 고성장 시대(10% 내외)를 구가하는 가운데 경험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수정하면서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중성장 시대(8% 내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2015년 3%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수출입 증가율도 같은 해를 기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과잉 투자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GDP 대비 투자 비중 축소와 서비스 산업 확대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은 2001-2010년 9.43%까지 상승하다 2011-2020년에는 7.91%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요소생산성도 1991-2000년에 9.91%에서 2001-2010년에 9.45%로 하락한 후 2011-2020년에는 7.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경제가 소비중심의 내수 확충과 동시에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7~8%대의 중성장 시대로 진입할 경우 국내 對中 수출 기회 축소는 물론 기술·산업 등 분야에 걸쳐 對中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경제의 소비중심 성장 전략 전환에 맞춰 수출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소비재 수출품목 확대 등 무역 품목 다변화 전략 수립과 함께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흥국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경제 및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 신성장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반도체 기술력 강화 등 하이테크산업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우리의 핵심 산업과 중복되는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중국의 투자 부문도 지역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중·서부 및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시설 확충도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동부지역 중심의 투자의존성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1. 시진핑(習進平) 시대의 도래

-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習進平)시대가 본격 개막될 전망
 - 중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 2010년 4/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
 - **올 11월 8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내정될 시진핑 부주석은 2013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에 오를 전망**
 - 관례상 중국 국가주석직은 1, 2차 각 5년씩 10년에 걸쳐 수행하게 되므로, 시진핑은 2023년 3월 있을 제14기 전인대까지 국가주석직을 수행할 것임
 - 시진핑을 위시한 시진핑 시대에 지도부를 구성할 주요 후보들 8명 가운데 리커창과 장더장 및 왕치산 부총리, 장까오리 천진시 서기, 위정성 상해시 서기 등 5명은 시장친화적 성격을 띠
 - 나머지, 류원산 당 선전부장과 리위엔차오 당 조직부장도 개혁성향이 아니라 중도성향의 지도자들임

< 시진핑의 향후 집권 일정 >

시기	집권기 주요 일정
2012.11	시진핑 당총서기 선출
2013. 3	시진핑 주석 및 지도부 출범
2016. 3	13차 5개년 계획 시작
2017.10	시진핑 당총서기 재선임(집권 1기)
2018. 3	집권 2기 국가 지도부 개편
2021. 7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3. 3	권력 이양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진핑 시대의 차기 예상 리더 성향 >

현직	인물	경제 개혁 성향
부주석	시진핑(59)	중립(보수성향)
부총리	리커창(57)	시장 친화적
부총리	장더장(66)	시장 친화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
부총리	왕치산(64)	시장 친화적
당 선전부장	류원산(65)	중립
천진시 서기	장까오리(66)	시장 친화적 (석유 업종 종사)
상해시 서기	위정성(67)	시장 친화적
당 조직부장	리위엔차오(62)	중립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위정성 상해시 서기와 리위엔차오 당조직 부장 중 1명 선출 예상.

2. 시진핑 시대의 중국 경제 : 중성장 시대 진입

○ 시진핑 시대(2013~2012년)는 덩샤오핑(1978~1992년), 장쩌민(1992~2002년), 후진타오(2002~2012년)와 같은 타 정권과는 달리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기(10% 내외)에서 중성장기(8% 내외)로 성장구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시진핑 시대의 중국 경제는 내수 부문의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 중심의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① 수출 중심 전략 한계 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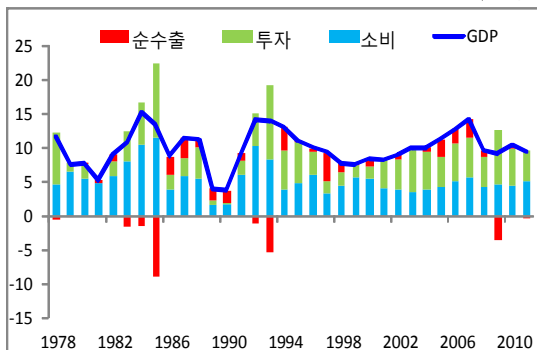
○ 향후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 증가율의 하향 안정화 등으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할 것임

- 2000년대 들어 평균 1%p 이상을 기록하던 수출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7%p(2008~2011년)로 급락, 경제성장률도 동기간 평균 10.5%에서 9.6%로 하락

- 한편,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5년 3%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수출입 증가율도 같은 해를 기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임

< 중국의 성장기여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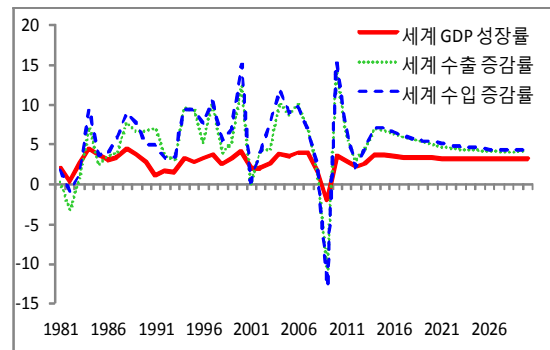
(%, %p)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세계 경제성장률 및 수출입 증가율 전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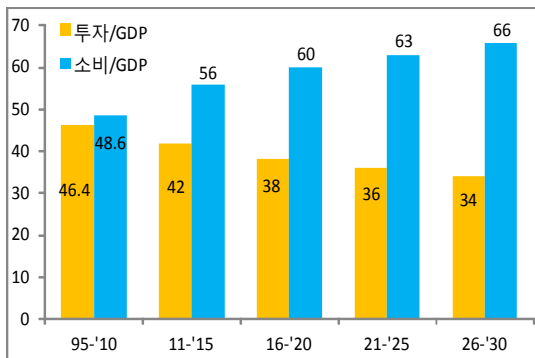
자료 : Oxford Economics.

② 소비 중심 성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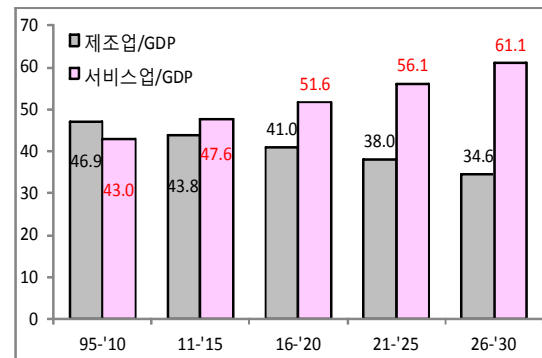
○ 지금까지 중국은 내수 부문에서는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을 취해왔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과 같은 과잉 투자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GDP 대비 투자 비중 축소와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진전될 것임

-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995~2010년 46.4%에서 2011~2015년 42%, 2016~2020년 38%로 점차 축소되는 반면 소비는 같은 기간 48.6%에서 56%, 6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산업별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1995~2010년 43.0%로 제조업 46.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2015년 사이에 47.6%로 상승하면서 제조업 43.8%를 상회, 이후 두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중국의 소비와 투자 비중 전망 > (%)



<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전망 > (%)



자료 : World Bank(2012), China 2030-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③ 질적 성장 추구

○ 한편, 생산성 또한 중장기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친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은 2001-2010년 9.43%까지 상승하다 2011-2020년에는 7.91%로 급락
- 더욱이 총요소생산성은 1991-2000년에 9.91%에서 2001-2010년에 9.45%로 하락한 후 2011-2020년에는 7.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및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추이 > (%)

구 분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2021-2030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	6.62	9.11	9.43	7.91	4.66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9.63	9.91	9.45	7.39	3.60

자료 : 日本經濟団体連合會 21世紀政策研究會(2012), 글로벌JAPAN2050年シミュレーションと總合戰略

3. 시사점

- 세계은행(2012)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투자에서 소비 중심의 내수 성장 전략 전환에 따라 2020년 이후 7%이하로 점차 둔화될 전망
 - World Bank(2012)에 따르면, 2016~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로 점진적인 하락하다 2021~2025년에는 5.9%로 크게 둔화 예상
 - 일본의 21세기정책연구소도 2011~2020년까지는 8%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나, 2021~2030년에는 4.28%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경제가 소비중심의 내수 확충과 동시에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7~8%대의 중성장 시대로 진입할 경우 국내 對中 수출 기회 축소는 물론 기술·산업 등 전분야에 걸쳐 對中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 중국 경제의 소비중심의 성장 전략 전환에 맞춰 수출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 전략 강화 필요
 - 내년도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 기존 중간재 위주의 對中 수출패턴을 점차 소비재 등으로 품목 다변화 전략 필요
 - 또한 주요 수출 품목의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매력이 높은 신흥국시장 개척을 통해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 필요
 - 중국경제 및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 필요
 - 향후 중국 신성장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반도체 기술력 강화 등 하이테크산업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우리의 핵심 산업과 중복되는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
 - 중국의 투자 부문도 지역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
 - 중·서부 및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시설 확충이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동부지역 중심의 투자의존성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연구위원 이부형 (02-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4자성어로 풀어본 시진핑 시대의 중국

■ 새로운 중국, 내정외강(內精外強)의 시대

지난 3월 5일 중국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 8%에서 7.5%로 하향 수정한데 이어, 2월에는 20년만의 사상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연초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은 올해 양회를 통해 제5세대 리더인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중국 경제는 지난 35년 동안 개방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 왔지만,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진핑 시대는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질적 및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등 민생 중심의 경제정책이 추진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이른바 '내정외강(內精外強)'의 경제 전략이 펼쳐질 전망이다.

■ 시진핑 시대, '내정외강' 달성 7대 전략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이 '내정외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들을 성장, 대외통상, 경제영토, 통화, 기업혁신, 자원, 문화의 7가지 분야에 걸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구조이질보량(以質補量). '이질보량'이란 질적 보완을 통해 양적 팽창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외수에서 내수, 투자에서 소비, 모방에서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장방식의 질적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에 서도 기존의 추격자 모형에서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선발자 모형으로의 질적 변화를 꾀할 것이다. **둘째, 대외통상-화이부동(和而不同).** '화이부동'이란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G2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이 미국과의 마찰을 축소시켜 미국과 대등한 경제동반자 입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미국과 대등한 경제적동반자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위상을 제고시키려 할 것이다. 더욱이 이는 2021년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대내 정치 여건에서 볼 때도 절실한 것이다. **셋째, 경제영토-이이제이(以夷制夷).** '이이제이'란 적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향후 중국이 FTA 등 타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미국 등 타 경쟁국에 대응코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은 중화 경제권 형성 기반 구축,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띤 세계 대륙 간 또는 국가 간 FTA 협정 등을 통해 경제 및 외교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이다. **넷째, 통화전쟁 부전이승(不戰而勝).** '부전이승'이란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뜻으로 향후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미·중간 통화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

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수출입업체의 위안화 결제 수요 증대 유도, 국가 간 통화스와프 확대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 시킴으로써 對美 통상마찰 회피는 물론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꾀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혁신-민진국개(民進國改)**. ‘민진국개’란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국유기업이나 분배정책 등을 개혁함으로써 중국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를 꾀하는 전략을 말한다.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한편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농간 소득격차 해결을 위한 정치거버넌스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자원개발-거안사위(居安思危)**. ‘거안사위’란 안정기에 위기시를 생각하고 대비한다는 뜻으로, 향후 중국은 경제 성장은 물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전략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등 자원 보유 신흥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경제 협력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다. **일곱째, 문화확산-중화공정(中華工程)**. ‘중화공정’이란 중국 문화의 세계화 전략을 뜻하는 것으로 향후 중국이 풍부한 자국 내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지난 2009년에 이미 ‘문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한 바 있고, 중국은 향후에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 문화산업 발전 장려와 대외 수출 확대를 통해 중화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지속적으로 꾀할 것이다.

■ 시사점과 대응과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고도 성장기에 경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빠르게 수정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소비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상품 및 브랜드 개발과 함께 중국기업들과의 전략적인 제휴등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對中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과의 협력체계 강화는 물론 FTA와 같은 한중간 협약을 전략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위안화 위상 증대에 대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평상시 원화 안정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동북아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꾀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정적인 해외자원 공급라인 확보 노력 지속은 물론 대체 에너지 개발 및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다섯째, 차이나머니 활용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배경으로 한 중국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만 대규모 단기성 중국 자금의 유출입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에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1. 새로운 중국, 내정외강(內精外強)의 시대

- (조정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제)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 속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내수 중심의 안정 성장 지향
 - 20년 만에 최대의 무역 적자 발생
 - 지난 3월 5일 원자바오총리는 그동안 전인대에서 8%로 유지해왔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는 7.5%로 하향 조정
- (혼란 속에 등장한 시진핑) 올해 10월로 예정된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국의 차기 리더 시진핑(習進平) 시대가 시작될 전망
 - 내년에는 공식적인 주석 및 지도부 출범 예정
 - 이번 제11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후진타오시대의 마지막 회의
 - 올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은 2013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에 오를 전망

< 시진핑의 향후 집권 일정 >

일정	회의	의미
2012.3	제11기 전인대	후진타오 집권 마지막
2012.10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시진핑 당총서기 선출
2013.3	제12기 전인대 1차 회의	시진핑 주석 및 지도부 출범
2016.3	제12기 전인대 4차회의	13차 5개년 계획 시작
2017.10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시진핑 당총서기 재선임(집권2기)
2018.3	제13기 전인대 1차 회의	집권2기 국가 지도부 개편
2021.7	제13기 전인대 5차 회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3.3	제14기 전인대	권력 이양

- (시진핑 시대의 중국 : 내정외강(內精外強)) 시진핑 시대는 이전시대에서 노출된 대내외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내정외강'의 정책을 펼쳐갈 전망
 - 과거 중국 경제는 지난 35년 동안 덩샤오핑에서 후진타오까지 개방과 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지만 대내외적 경제 불균형 요소도 크게 확산됨
 - 중국경제는 개방화로 진전을 이룬 덩샤오핑 시기부터 대외개방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끈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큰 성과 달성

- 하지만, 과도한 개방과 양적 성장정책으로 글로벌 불균형 등 대외적 불균형과 민영기업 퇴화,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대내적 불균형은 극복 못함
- 시진핑 시대는 ‘내정외강’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각 부문별 구체적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내정외강이란 안으로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질적 및 안정적 성장 등 민생을 위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시진핑의 본격적인 대내외적 경제 발전 전략은 13차 5개년 계획에서 구체화될 전망
 - 시진핑은 중국의 주석직 연임제)에 따라 2022년까지 국정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임
 - 12차 5개년 계획 동안은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를 염두한 안정적 경제 운영이 주가 된다면, 13차 5개년 계획부터는 대내외적 전략이 구체화 될 것으로 추정
- 시진핑 시대 중국이 ‘내정외강’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이를 성장, 대외통상, 경제영토, 통화, 기업혁신, 자원, 문화의 7대 부문에 걸쳐 전망해 봄
 - 부문에 대한 전략적 의미를 4자성어로 함축하고,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전망

< ‘내정외강’ 달성 7대 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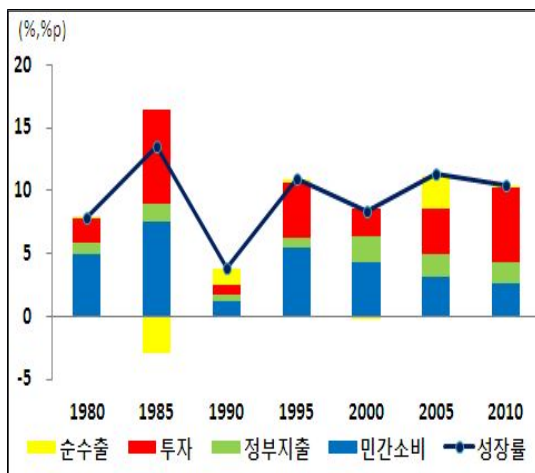
시진핑 시대의 키워드		내정외강(內精外強) : 경제의 내실을 기하면서 대외적 역량을 강화
부문별 키워드	①성장구조	이질보량(以質補量) : 질적 보원을 통해 양적 팽창의 취약점을 보완
	②대외통상	화이부동(和而不同) :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룸
	③경제영토	이이제이(以夷制夷) : 적을 이용해 또 다른 적을 제압
	④통화전쟁	부전이승(不戰而勝) : 싸우지 않고 승리
	⑤기업혁신	민진국개(民進國改) : 민간기업은 육성하고, 국유기업을 개혁
	⑥자원개발	거안사위(居安思危) : 안정기에 위기 때를 대비
	⑦문화확산	중화공정(中華工程) : 중화 문화를 널리 확산

1) 중국 주석직은 5년 단위 연임제로 10년 집권이 가능하며, 당의 핵심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연령제한은 68세로 규정되어 있음.

2. 시진핑 시대, '내정의강' 달성 7대 전략

- (성장구조 : 이질보량(以質補量)) '이질보량'이란 질적 보완을 통해 양적 팽창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외수에서 내수, 투자에서 소비, 모방에서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전략
 - 향후 중국은 경제 성장의 축을 투자와 외수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크게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
 - 90년 이후 중국 경제의 고성장은 투자와 외수에 크게 의존, 이에 따라 과잉 투자에 의한 문제가 다발하고 대외 무역마찰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
 - 향후 중국은 과잉투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소비 중심으로 내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수출지향형 성장 전략에서 내수 확대형 성장전략으로 전환될 전망
 - 한편 산업부문에서는 기존의 추격자 모형에서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선발자 모형으로의 질적 변화를 꾀할 것임
 - 중국은 2003년부터 시작된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을 기반으로 2015년까지 GDP 對比 R&D(Research And Development) 비중을 현재 1.8%에서 2.2%로 높여 혁신 기반 강화 계획
 - 한편, 12차 5개년 계획에서 강조한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신소재, 차세대 IT,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등 7대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 산업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음

< 중국의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CEIC.

< 중국의 R&D 투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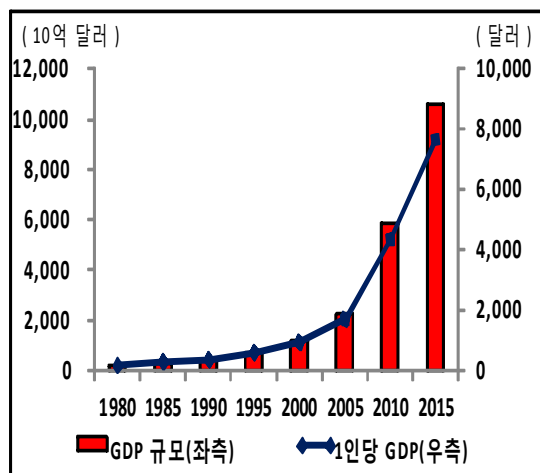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대외통상 : 화이부동(和而不同)) ‘화이부동이란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G2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이 미국과의 마찰을 축소시켜 미국과 대등한 경제동반자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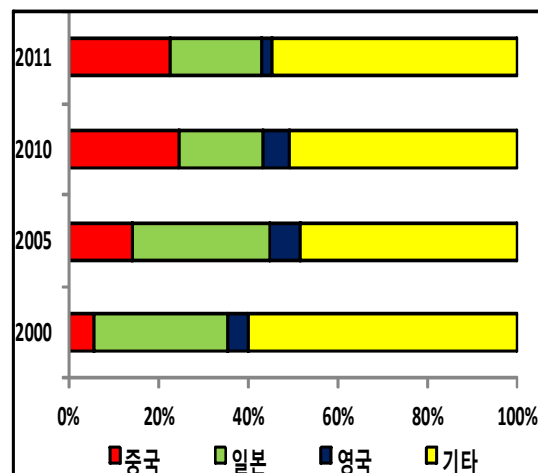
-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의 대도약을 발판으로 세계 경제 위상이 급상승
 - GDP규모는 1980년 약 0.2조 달러에서 2011년 6.9조 달러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1인당 GDP도 같은 기간 205달러에서 5,100 달러로 25배 상승하는 경제권대 도약 성공
 - 한편,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고,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경제의 차세대 주역으로 부상중
 - 더욱이 2006년에는 외환보유액 면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 외환보유국가로 도약하면서 위기관리 능력도 크게 향상, 미국채 최대 보유국가로 올라선 후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동반자 입지가 크게 강조

- 중국은 2016년 경제 규모 세계 1위로 전환되는 등 향후 미국과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축소시켜 미국과 대등한 경제적 동반자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대내 정치적 여건상에서도 실질적인 경제 위상 제고가 절실
 - IMF(2011)에 따르면, 중국의 GDP 수준은 2016년에 미국을 넘어설 전망
 - 시기적으로 시진핑의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으로 중국 공산당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명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중국의 경제 규모 전망 >



< 미국채 발행액 가운데 중국의 보유 비중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경제영토 : 이이제이(以夷制夷) ‘이이제이란 적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의미로 향후 중국이 FTA 등 타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미국 등 타 경쟁국에 대응코자 하는 전략을 의미

- 미국과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경쟁 심화
 - 2008년 TPP²⁾에 합세한 미국에 이어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도 참가 여부를 밝히면서 환태평양을 두고 미·중 간 치열한 경제 영토 확장 경쟁 가속화
 - 중국은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핵심 국가와 FTA 추진으로 미국의 TPP 확장을 견제하기 시작
 - 2015년까지 협상중인 국가들과 FTA가 성사된다면, 중국의 FTA 경제권은 크게 넓어질 전망
- 향후 중국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띤 세계 대륙간 FTA 협정을 통해 경제 및 외교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임
 - 홍콩·마카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통해 중화경제권 형성의 기반을 구축
 - 아세안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폭넓은 분야의 협정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 협력 주도권 확보
 - 해외 에너지 등 자원 확보를 위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과 남미 지역 각국 및 걸프만 협력회의와도 FTA 협상 중

< 중국의 FTA 체결 현황 >

구분	체결	협상중	협상중려
아시아	CEPA, 아세안, 뉴질랜드, 싱가포르, ECFA, 파키스탄	호주	인도, 한국, 한·중·일
유럽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미주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	-	-
아프리카	-	SACU	-
중동	-	GCC	-

자료 : 중국자유무역서비스.

<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전망 >

(단위 : %)

구분	경제영토 (세계 GDP 對比 비중)
2010	5
2015(전망)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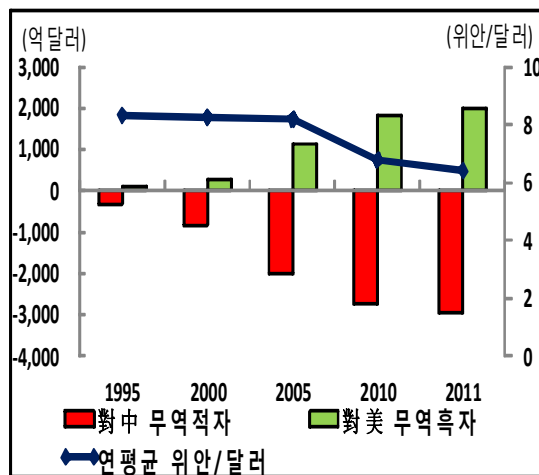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주: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 규모

2)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지난 2005년 6월에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을 중심으로 출범한 협정. 현재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6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권 부상이 예상.

○ (통화전쟁 : 부전이승(不戰而勝)) ‘부전이승’이란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뜻으로 향후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미·중간 통화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것이라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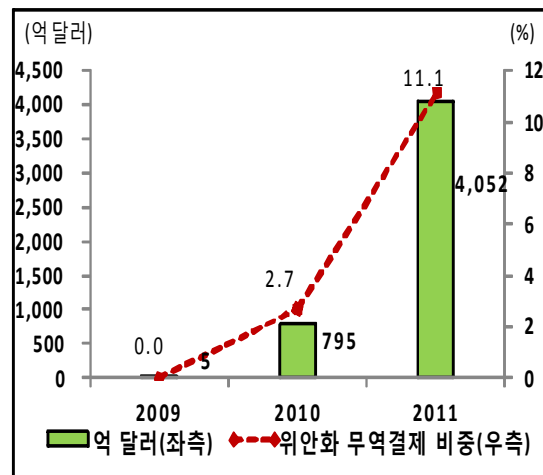
-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 누적으로 미국의 對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 고조
 - 달러 對比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위안화 환율개혁 당시 8.27위안에서 2011년 말 6.30위안으로 약 24%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무역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
- 중국은 향후 미국의 통화절상 압력 지속에 대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對美 통상마찰 회피는 물론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꾀할 전망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상해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맞춰 국내 자본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출입 업체의 위안화 결제 수요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국가간 통화스와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美·中 間 무역 불균형 >



자료 : CEIC.

< 위안화 무역결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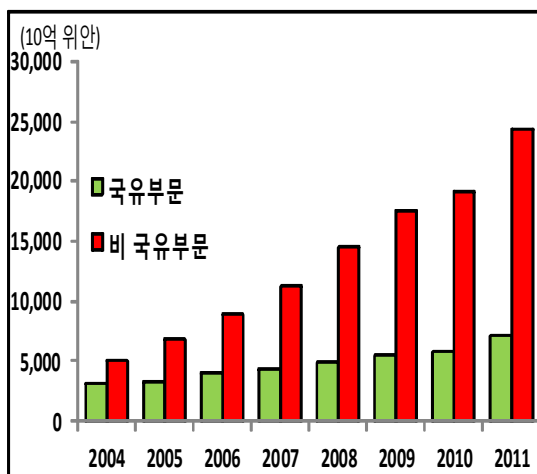
자료 : CEIC.

3) 2012년 3월, 전인대 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무역거래시 위안화결제등록제를 폐지했고, 전 수출기업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허용. 한편 같은 해 2월에는 15번째로 터키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위안화 수요 확대를 모색 중.

○ (기업혁신 : 민진국개(民進國改)) '민진국개'란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대신 국유기업이나 분배정책 등을 개혁함으로써 중국의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를 꾀하는 전략을 말함

- 향후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을 더욱 더 빠르게 육성할 전망
 - 포춘지(Fortune)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중앙 국유기업 매출액은 전체 GDP의 47%이고, 포춘 500대에 60개 이상이 진입하는 큰 경영성과 달성
 - 1993년 국유기업 개혁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국유기업의 주식제개혁 등 국유지분을 민간에 공개하는 등 국유기업 개혁이 크게 진전
 - 하지만 국유기업 중 성과가 큰 기업은 약 100여개의 중앙 국유기업이며, 나머지 10만개 이상의 국유기업은 공업생산능력이 민간 기업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향후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될 것임
- 또한, 개혁개방 이후 확대된 도·농간 소득격차 해결을 위해 균형적 분배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
 -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현재 약 3배 차이로 벌어진 상태
 - 농민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는 후코우제도(戶口制度)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농민공 등 사회최하층 노동자 도시 근로시 보험혜택 방안마련 전망
 - 또한, 12차5개년 계획에 따라 서부대개발 등 지역 분배정책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예상
-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국유·민간기업, 도·농 등 전국 각 부문에 걸친 정치 거버넌스 강화를 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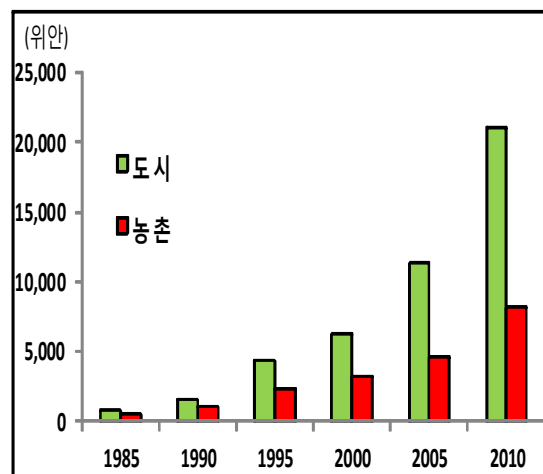
< 중국 기업의 총공업생산 규모 >



자료 : CEIC.

주 : 국유기업은 국유 및 집체기업, 비국유 기업은 외자 및 민간 기업을 의미.

< 도·농간 평균소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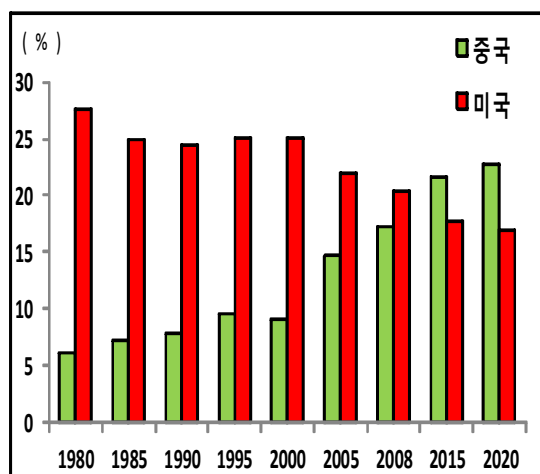


자료 : CEIC.

○ (자원개발 : 거안사위(居安思危)) '거안사위'란 안정기에 위기시를 생각하고 대비한다는 뜻으로, 향후 중국은 경제 성장은 물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전략을 말함

- 중국은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이 급격히 증대됨
 - 중국의 세계 국가 중 에너지 소비 비중은 2002년 10%를 넘어서며 급증
 - 美에너지정보청(EIA)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이대로 증가한다면 2015년에는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이 약 21.7%로 증가해 미국의 약 17.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자원 보유 신흥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경제 협력을 빠르게 확대시킬 것임
 - 최근 중국은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신흥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이들 국가와 경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한편 기존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러시아, 남아공 등 광물 및 석유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지난 2007년 9월 자국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설립한 국부펀드를 이용해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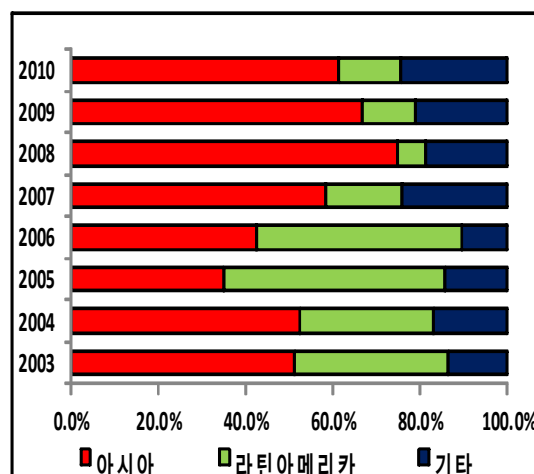
<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 전망 >



자료 : EIA

주: 에너지 소비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포함.

< 중국의 대륙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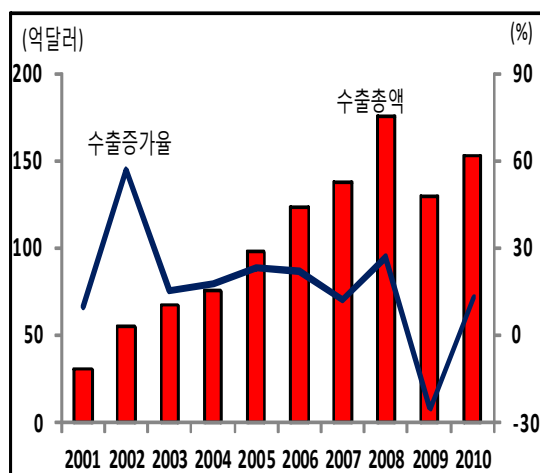
자료 : CEIC.

주: 기타에는 아프리카 유럽 북미 등 포함.

○ (문화확산 : 중화공정(中華工程)) '중화공정'이란 중국 문화의 세계화 전략을 뜻하는 것으로 향후 중국이 풍부한 자국 내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시키려는 전략임

- 중국은 문화산업 육성과 대외 수출 확대에 의한 중화문화 확산 추진
 - 중국은 2009년에 이미 "문화산업 발전계획(文化産業振興規劃)"을 통해 문화 창작, 영화제작, 출판, 인쇄,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7개 분야에 대해 중점 문화산업으로 지정, 집중·육성하고 있음
- 향후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
 -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제17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문화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여 2015년까지 GDP 대비 5%이상인 2.9조 위안 수준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
 - 중국은 2015년까지 문화콘텐츠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
 -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부문은 '11~15년까지 연평균 11.6% 증가해 독일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광고 및 인터넷 부문에서도 12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은 자국 내 생산 문화상품의 대외 수출 확대를 통해 중화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을 촉진할 전망

< 중국의 문화상품 수출 추이 >



자료 : CEIC.

< 국가별 문화콘텐츠 시장 성장 전망 >

(단위 : %)

구분	2011~2015년 연평균 증가율 전망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광고	인터넷
미국	4.6	4.2	7.8
일본	2.5	2.3	3.8
독일	3.4	3.8	5.0
중국	11.6	14.1	7.8

자료 :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2011-2015)*.

3. 시사점과 대응과제

-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고도 성장기에 경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빠르게 수정하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전략 구축이 필요함
 - 중국 내수시장 공략 가속
 -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상품 및 브랜드 개발과 전략적인 제휴도 적극 활용
 - 중국의 독특한 지역색채와 중산층의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혁신능력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적인 마케팅 추진
 - 對中 경제협력 강화
 - 중국 경제협력 채널 강화를 통해 양국 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상호호혜 관계를 구축해야함
 - FTA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면밀한 부문별 검토를 통해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 위안화 위상 증대에 대응한 전략 마련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강화 등을 통해 원화 안정성을 제고 시켜야 함
 - 동북아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
 - 자원 확보 노력 강화
 - 중국 에너지 소비 수요 확충을 위해 국부펀드 및 해외직접투자 등 신흥국 시장으로 자원 확보 러시가 향후 더욱 증가할 예정이므로 자원 확보를 위한 우위 선점을 위해 신흥국에 대한 경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함
 - 안정적인 해외자원 공급라인 확보 노력 지속은 물론 대체에너지 개발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차이나머니 활용 전략 마련
 -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배경으로 한 중국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 다만 대규모 단기성 중국 자금의 유출입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에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연구위원 이부형 (02-2072-6306, leebuh@hri.co.kr)